藏府와 身形·의 病機 및 病症에 대한 比較考察

白上龍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敎室

Comparative study on patterns and symptoms of disharmony(病機·病症) between the internal organs(藏府) and external bodily form(身形)

All living things including human being consist of soul(spirit) and body. Soul is the root of a life and body frames it. I wrote this paper to tell how internal injury due to endogenous etiological factors and affection due to exogenous pathogenic factors, affect the internal organs and the external bodily form.

This paper begins with description of the patterns of disharmony of the internal organs.

General disorders of each Five-Jang(五藏) can be classified into two types of soul and body. The Liver and the Heart which lead changing to Yang(陽) of vital energy, have close relationship with spiritual symptoms because spirit is related to Yang. The Lung, Kidneys, the Spleen which lead changing to m(陰) of vital energy, mainly connected with physical disorders because body is relatively close to m. The Five-Jang are ruled by the Five-Phases(五行) system and cause troubles with Oche(五體) and the nine body orifice. Otherwise the main function of the Six-Bu(六府) is to receive food, absorb the usable portions, and transmit and excrete waste. Therefore they can cause such problems as abdominal pain, distention, difficulty in urination, and constipation. The spleen is responsible for sending Grain-Ki(穀氣) so that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six-Bu. The Gall bladder takes care of control of giving out spirit. That's why it presents many symptoms related to the spirit that is ruled by the Five-Jang.

Patterns of disharmony of external bodily form is influenced by the state of Meridians. Bodily forms get divided into many parts by the function of six-meridians(六經) to which they belong. Six-meridians have their own function related to excretion, retention, and balance(開闔樞). If local bodily forms get affected by pernicious influences, the Meridians to which they are attached will lose harmony and cannot fulfil their own functions. Because the meridian system unifies all parts of the body, the whole body will be under the influence of the affection although local parts of the bodily forms get affected. Therefore the symptoms of disharmony should be considered in a synthetic view. There are however, also cases which should be focused on the very meridian channels affected. Disorder within a Meridian generates derangement in the pathway make it not to benefit the muscles and skin belonging to it.

Because the meridians connect the interior organs with the exterior bodily form, they are influenced by each other.

Key Words : the internal organs(藏府), the bodily form(身形), the pattern of disharmony(病機), the symptoms of disharmony(病症), excretion, retention, and balance(開闔樞), spirit(神志)

접 수 : 2000년 10월 11일
채 택 : 2000년 11월 4일
교신저자 : 백상룡,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한의학연구소 특별연구원
(02-961-9183)

Ⅰ. 서론

인간을 비롯한 生命體는 생명의 뿌리가 되는 精神과 생명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肉體로 이루어져 있다. 정신과 육체는 서로 별개의 異物이 아니나 서로 轉化, 資生할 수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精과 神은 先天之氣의 化生으로서 생명의 뿌리이자 생명체의 主宰者이며, 肉體는 後天之氣의 滋養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것이다.

精과 神은 신체 내 藏府의 활동을 통해서 身形을 주재하여 생명체 생명활동을 조절하고, 身形은 장부의 意志에 따라 轉化, 屈伸을 반복하면서 藏府의 의지를 실천한다. 신체 내부에 위치한 장부와 신체의 外形을 이루는 신형이 이렇게 서로 어긋남 없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經絡의 相通作用 때문이다.

疾病은 생명체 자체의 모순을 통해서 발생한 內因이나 外部로부터 침범한 邪氣인 外因 등에 의해, 생명체가 정상적인 자기 활동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이 두 가지 病因은 개별적으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상호 호응하는 對應關係를 이루어 복합적인 상태의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1].

본 論考에서는 內因에 의해 발생한 內傷疾病과 外因으로 인해 발생한 外感疾病이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藏府, 身形의 본질적인 특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두 질병간의 연관성은 어떻게 맺어지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藏府와 身形의 生機

장부와 신형은 생명체 生命과 實體를 이루는 두 축이다. 장부는 五神을 潛藏하여 생명체의 활동을 주재하고, 신형은 장부의 의지에 따라 생명활동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보호한다.

이를 陰陽으로 分化하여 논하면, 신형의 내부에 위치한 장부는 陰이 되고 장부의 외부를 감싸는 身形은 陽이 된다. 『素問·陰陽應象大論』과 「生氣通天論」 등에서 內外 陰陽의 상관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陰在內, 陽之守也, 陽在外, 陰之使也."[2], "陰者, 藏精而起亟也, 陽者, 衛外而爲固也"[3]

陰인 장부는 신형의 내부에 위치하여 陽인 신형이 지켜주고 신형은 외부에 위치하여 장부의 부림을 받는다. 陰은 精을 潛藏함으로써 極 즉 生命之氣의 중심을 이루고 신형에서는 形氣가 돌면서 생명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다.

1) 藏府의 位置와 機能

장부는 五神을 潛藏하고[4] 五行之氣를 통해 생명활동을 주재하는 五藏과 오장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水穀의 出入을 담당하는 六府로 나눌 수 있으며, 그 藏器는 모두 體腔 내에 위치한다. 체강 내에 위치한 오장은 자기의 神志(五神)를 펼치고 情報를 받아들이는 수신기로서 七竅를 頭部에 드러내놓고 있으며, 육부는 수곡의 濁氣를 배설하기 위하여 二陰을 體腔의 下部에 열고 있다.

(1) 五藏의 位置와 機能

오장의 藏器는 모두 體腔 내에 위치한다. 체강은 橫膈膜을 기준으로 上部와 下部로 나눌 수 있다. 이를 다시 內外로 나누면, 상부는 外部가 되며 하부는 內部가 된다. 이를 陰陽으로 分屬하면 상부는 陽이며, 하부는 陰이다. 또 외부는 陽이며 내부는 陰이다.[5] 따라서 오장을 위치에 따라 陰陽으로 分屬하면 心과 肺는 체강의 上外部에 위치하여 陽藏이 되며, 肝과 腎은 下內部에 위치하여 陰藏이 된다. 脾는 橫膈膜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 역시 陰藏이 된다[6].

1.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285. "正氣存內, 邪不可干"
2. 洪元植 精校, 上揭書, p.24.
3. 洪元植 精校, 上揭書, p.16.
4.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236. "五藏者, 所以藏精神魂魄者也.", p.99. "五藏者, 合神氣魂魄而藏之"
5.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素問, p.20. "夫言人之陰陽, 則外爲陽, 內爲陰. 言人身之陰陽, 則背爲陽, 腹爲陰"
6. 六府는 體幹의 가운데에서 하나의 管처럼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오장처럼 명확하게 위치를 잡을 수 없

陰藏과 陽藏은 그들 사이의 상호 기능관계에 따라 다시 陰陽으로 구분할 수 있다. 肺와 心은 위치 상 陽藏에 속하지만 기능적으로 논한다면, 氣血을 펼쳐 소모시켜 펼치는 陽的인 활동을 하는 心은 陽에 속하며, 精氣를 거두어 빨아들이는 陰的인 활동을 하는 肺는 陰에 속한다. 陰藏도 마찬가지이다. 精氣를 陰精으로 만들어 간직하는 陰的인 작용을 하는 腎은 陰에 속하며, 陰精으로부터 陽氣를 끌어내 올려주는 陽的인 작용을 하는 肝은 陽에 속한다. 즉 心은 陽部에 위치하면서 陽的인 작용을 하여 氣를 發揚시키고 肺는 陽部에 위치하면서 陰的인 활동을 하여 氣를 收斂시킨다. 腎은 陰部에 위치하면서 陰的인 활동을 하여 氣를 潛藏하고 肝은 陰部에 위치하면서 陽的인 활동을 하여 氣를 發動시킨다. 肺는 心의 지나친 陽化작용을 제어하기 위해서 心의 上外部에 위치하며, 肝은 腎의 지나친 陰化작용을 막기 위해서 腎의 上外部에 위치한다. 또 脾는 六府에서 化生한 氣血로 생명활동을 자양하는 陰과 陽의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므로 至陰이라고 한다. 이러한 오장의 상호 위치와 기능적인 특성의 陰陽關係에 대하여 『素問·金匱眞言論』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背爲陽, 陽中之陽, 心也. 背爲陽, 陽中之陰, 肺也. 腹爲陰, 陰中之陰, 腎也. 腹爲陰, 陰中之陽, 肝也. 腹爲陰, 陰中之至陰, 脾也"[7]

肺와 心은 陽部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양부에서는 陽中之陽인 心이 주체이고 陽中之陰인 肺는 객체가 되어, 心의 활동을 肺가 제어하는 형식으로 작용이 이루어진다. 肺의 收斂작용은 心의 發散작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고 할 수 있다. 즉 肺는 心의 발산작용으로 體腔 內가 空虛한 상태로 있을 때 비로소 收斂할 수 있다. 따라서 內氣를 뿜는 心은 肺의 안쪽에 外氣를 收斂하는 肺는 心의 바깥쪽에 위치한다. 腎과 肝은 陰部에 위치하기 때문에, 음부에서는 陰中之陰인 腎이 주체가 되고, 陰中之陽인 肝이 객체가 된다. 肝의 湧出작용은 腎의 潛藏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즉 肝은 腎의 潛藏하는 힘에서 생기는 半撥力으로 湧出작용을 하기 때문에 腎의 위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肝이 腎의 內下部에 위치하면 肝은 腎의 潛藏하는 힘을 이길 수 없으므로 끌어올리는 湧出작용이 이루어질 수 없다. 脾는 이 네 藏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하므로 四藏의 中央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오장의 위치는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가장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근거이다.

(2) 六府의 位置와 機能

육부는 胃, 大腸, 小腸, 膀胱, 膽, 三焦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위, 대장, 소장, 방광, 삼초 등은 음식을 받아들여 소화흡수하고 배설함으로써 인체가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여 오장의 생명활동을 보조한다. 반면에 담은 오장과 육부의 교통을 담당하여 상호관계를 조절한다.

오장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天地自然으로부터 얻는다. 천지자연으로부터 氣를 받아들이는 대표적인 두 가지 과정이 呼吸과 음식물의 섭취이다.[8] 호흡은 생명체가 天氣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며, 음식물의 섭취는 地氣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天氣와 地氣는 인체에서 외부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體表를 통해 흡수되어 氣血의 宣發작용을 맡고 있는 오장 중 肺로 모여, 心의 발산작용에 힘입어 전신으로 퍼져 나간다[9]. 즉, 인체에 들어오는 모든 외부의 기운은 오장의 外皮로서[10] 肺를 통해야만 비로소 오장 안으로 들어가 생명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天氣를 받아들이고 배설하는 通路가 喉頭와 皮毛이며, 地氣를 받아들이고 배설하는 통로가 咽頭와 六府 중 胃, 大腸, 小腸, 膀胱, 三焦 등이다. 따라서 天氣를 받아들이는 氣道[11]와 마찬가지로 육부도 인체의 外表가 되어야 한다[12]. 즉, 오장은 地氣를 인체에서

을 뿐만 아니라, 장부상통관계에 따라 五藏에 종속되므로, 특별히 그 위치를 논할 의미는 없다고 본다.

7. 洪元植 精校, 上揭書, p20.

8. 이외에도 사람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천지의 기운은 헤아릴 수 없다. 몇가지 예를 들면, 寒氣, 熱氣, 빛 등이다.

9. 洪元植 精校, 上揭書, p.36. "天食人以五氣, 地食人以五味. 五氣入鼻, 藏於心肺, 上使五色脩明, 音聲能彰, 五味入口, 藏於腸胃, 味有所藏, 以養五氣, 氣和而生, 津液相成, 神乃自生."

10. 이에 대하여, 『素問·痿論』에서 "肺者, 藏之長也, 爲心之盖也"라고 하였으며, 『靈樞·師傳』에서 "五藏六府者, 肺爲之盖"라고 하였다.

11. 肺는 喉頭를 통로로 해서 직접적으로 外部와 접촉하고 있다.

12. 단순히 외적인 형태만를 살피면 육부는 인체의 내부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기도 천기와 마찬가지로 그 來源이 體外인 이상 外表를 통하지 않고는

쓸 수 있도록 정화시켜 받아들이는 통로로서 육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天氣를 받아들이는 통로에 비해 地氣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복잡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地氣와 天氣의 질적인 차이 때문이다. 천기는 그 자체가 이미 精微롭고 萬物 공통이기 때문에 肺가 이를 받아들여 인체에 필요한 기로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지기는 이미 특정한 한 事物의 氣로 고착화된 상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곧바로 自己의 氣로 동화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지기도 천기와 마찬가지로 정미한 상태로 바뀌어야 비로소, 肺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폐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곧 육부 중 소화, 배설에 관여하는 것들이다. 이에 대하여, 『素問·六節藏象論』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脾胃大腸小腸三焦膀胱者, 倉廩之本, 營之居也, 名曰器, 能化糟粕, 轉味而入出者也, …… 此至陰之類, 通於土氣."[13]

이에 비하여 膻은 中正之官으로서 水穀의 濁氣와 직접적으로 접하지 않고 오장 神志의 發動을 결정한다[14]. 따라서 모든 장부는 담의 조정에 의해 서로 충돌없이 자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15]. 즉 膻은 육부에서 속하면서도 오장과 마찬가지로 神志의 활동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

육부는 특정 사물의 氣로 固着化된 地氣를 오장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제해주는 것으로[16], 體表가 변화된 外氣의 통로라고 할 수 있으며, 그 精製와 들이고 배출하는 과정 중 역할에 따라 위, 대장, 소장, 방광, 삼초 등으로 이름을 달리 할 뿐이다. 그리고 脾는 비록 오장 중에 하나로 재 藏이 서로 충돌없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육부에서 받아들인 수곡의 精微之氣를 肺로 전달하는 작용만을 본다면, 역시 喉頭, 咽頭, 六府와 마찬가지로 오장과 體表인 육부를 연락해주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다. 이는 神志의 결단을 주관하는 膻과 대비된다.

(3) 五藏의 外候 七竅(혹 九竅)

竅는 체내에 있는 오장이 외부와 交通하는 통로이다. 인체에는 9개의 竅가 있으니, 눈(2개), 귀(2개), 입, 혀, 코, 항문, 精竅(尿孔) 등이다. 이 중 항문과 정규는 下體에 있기 때문에 안면에 있는 7개의 竅만을 따로 구분하여 7竅라 하고, 하체에 있는 肛門과 精竅를 합하여 九竅라고 하기도 한다. 오장은 竅를 통해서 외부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意志나 精, 神, 氣, 血 등을 출입시킨다.

"東方青色, 入通於肝, 開竅於目, …… 南方赤色, 入通於心, 開竅於耳, …… 中央色黃, 入通於脾, 開竅於口, …… 西方白色, 入通於肺, 開竅於鼻, …… 北方黑色, 入通於腎, 開竅於二陰, 藏精於腎."[17]

천지의 五行之氣는 九竅를 통하여 인체의 오장과 서로 직접적으로 교통하며, 오장은 또한 九竅를 통하여 천지의 변화를 自覺하고 자기의 氣를 교류할 수 있다. 즉 肝은 눈을 통하여, 心은 귀를 통하여, 脾는 입을 통하여 肺는 코를 통하여 腎은 二陰을 통하여 外界와 氣를 교류함으로써 情報를 취득하고 반응을 나타낸다.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心의 竅를 혀라 하며 腎의 竅를 귀라 하고, 下體에 있는 二陰은 竅의 범주에서 논하고 있지 않다.

오장은 각 竅가 맡은 역할에 따라 特化된 기능을 담당하는 중추가 된다. 사람이 자극을 받고 이에 반응하는 감각의 수용과 표출이 竅를 통해서 오장의 特化된 기능 속에 귀납되는 것이다.

"五藏者, 當上關於七竅也. 故肺氣通於鼻, 鼻和則知香臭矣. 肝氣通於目, 目和則知白黑矣. 脾氣通於口, 口和則知穀味矣. 心氣通於舌, 舌和則知五味矣. 腎氣通於耳, 耳和則知五音矣."[18]

인간에게 미치는 외계의 영향들은 모두 氣 운동의

체내로 들어올 수 없다. 따라서 육부는 체표와 마찬가지로 인체의 외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素問·金匱眞言論』에서 이르기를, "夫言人之陰陽, 則外爲陽, 內爲陰, 言人身之陰陽, 則背爲陽, 腹爲陰, 言人之藏府中陰陽, 則藏者爲陰, 府者爲陽"이라고 하였다. 즉, 부가 陽에 속하는 것은 오장보다 밖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朴贊國은 이를 밀이 뚤린 圓筒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즉, 육부는 外表가 인체 안쪽으로 함몰되어 들어간 管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13. 洪元植 精校, 上揭書 pp.36~37.
14. 洪元植 精校, 上揭書, p.34. "膻者, 中正之官, 決斷出焉."
15. 洪元植 精校, 上揭書, p.37. "凡十一藏取決於膻也."
16.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靈樞, p.213. "六府者, 所以化水穀而行津液者也."
17. 洪元植 精校, 上揭書, pp.20~21.
18. 凌耀星, 難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69.

特化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예로 소리는 귀가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特化된 氣의 운동이며, 빛은 눈이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氣가 特化된 것이며, 음식은 입이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氣가 特化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竅와 상응하는 오장은 각기 特化된 氣를 수용함으로써 독특한 자기만의 氣場을 형성할 수 있다. 인간의 감각 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반응들은 이 九竅를 통해서 인간의 오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간은 반대로 이러한 자극에 대한 반응을 오장의 주도하에 있는 각 부분을 통하여 외부로 표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장은 外竅를 열어 천지의 기운과 교통할 뿐만 아니라, 오장의 神은 外竅의 정보 수집을 근거로 해서 인체의 생명활동을 주재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19]

2) 身形의 構造와 機能

身形 즉 사람의 形體는 형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오장육부의 활동이 氣의 凝集을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된 五體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五體는 신형을 형성하는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五體의 조합에 의하여 이루어진 신체는 다시 體幹과 四肢로 나눌 수 있다. 장부는 五體를 바탕으로 자기의 精氣를 담는 藏器를 형성하고, 또 보호받는다.

"身形支節者, 藏府之蓋也."[20]

(1) 身形을 이루는 五體

오체는 신형을 이루는 5가지 신체 구조물로 오장의 氣가 趣注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형태를 말하니, 곧 皮毛, 血脈, 筋膜, 肌肉, 骨髓 등이다. 이들은 오장의 氣機활동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오장의 氣와 상통하며 오장의 지배를 받는다[21]. 이들은 형체를 구성하여 생명체가 활동할 때 실질적인 운동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장부를 감싸고 지지하는 장부의 보호대 역할을 한다.

"夫人身之皮毛, 血脈, 筋膜, 肌肉, 骨髓以成形, 內則有肝心脾肺腎以主之"[22], "『靈樞·經別』, 云'骨爲幹', 黃元御, 曰"凡人之身, 骨以立其體幹, 筋以束其關節, 脈以通其榮衛, 肉以培其部分, 皮以固其肌膚"[23]

근막, 골절, 혈맥, 기육, 피모 등은 장부의 덮개로서 장부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장부의 생명활동이 外現化하여 體化된 것이다. 그러므로 형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氣의 律動은 장부의 陰陽五行 변화와 하나로 관통되어 변화하고 있다.

오장은 각기 자기와 相合하는 五體를 생성하고 이들을 五行의 상관관계에 따라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각기 다른 특성과 기능을 분리해 가지면서 하나의 통일된 형체를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 즉, 생명활동의 주체로서 오장은 각기 자기의 五行之氣를 내어 역할이나 위치에 따라 나누어져 있는 모든 부분을 하나의 生命體係로서 통일시켜 준다. 그러므로 인체의 모든 부분 즉 오체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빠짐없이 오장을 推動하는 오행지기 生長化收藏의 과정을 거쳐 生成, 消滅한다고 할 수 있다[24].

오장과 오체의 相合관계는 心은 血脈과 상합하며, 肺는 皮毛, 肝은 筋膜, 脾는 肌肉, 腎은 骨髓와 상합한다. 이 상합을 통해서 오장은 각기 자기와 상합하는 형

19. 朴贊國은 外竅를 오장의 안테나 즉, 受信機로 표현하고 있다.
20.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靈樞, p.164.
21.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素問 p.166. "肺主身之皮毛, 心主身之血脈, 肝主身之筋膜, 脾主身之肌肉, 腎主腎之骨髓."
22. 陳無擇, 三因極一病證方論. p.19.
23.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四聖心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28.
24. 예로 五體 중에 腎이 주재하는 뼈의 생장사멸을 살펴보자. 뼈를 주재하는 기운은 腎의 水氣이다. 그러나 수기만을 가지고는 뼈는 이루어질 수 없다. 수기는 단지 形을 이루는 求心點으로서 骨精 즉, 뼈의 뼈대를 세운다. 온전한 뼈가 이루어지려면 여기에 살이 붙어야 하고 다시 단단하게 굳는 작용을 받아야 한다. 살이 붙으려면 뼈는 자기의 기운인 骨의 精氣를 내어 外氣를 받아들여야 한다. 즉, 木氣를 내어 길이를 늘리고 火氣를 내어 부피를 넓혀서 外氣가 들어올 수 있는 場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외기를 들여 살이 붙으면 金氣가 작용하여 이를 단단하게 다지고, 여기에서 다시 水氣가 작용하여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소모된 骨精을 보충함으로써, 뼈를 이루는 과정을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生長化收藏의 과정은 인체를 이루는 모든 곳에서 상통한다. 단지 어떤 기운이 주도가 되어 이러한 일을 수행가는 가에 따라 그것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근이 되고 할뿐이다. 따라서 五行之氣 중에 어느 한 기운이라도 결핍된다면 그 事物은 생겨나 살아갈 수 없다.

체의 일단을 지배하고 나아가 자기의 내재한 상태까지도 드러낼 수 있다. 예를 들면, 혈맥은 심의 상태를 안색의 血氣를 통해 표현하고, 피모는 肺의 상태를 표현하며, 근막은 그 말단인 손톱, 발톱을 통해 肝의 상태를 표현하고, 골수는 골의 말단인 毛髮을 통해 腎의 상태를 표현하며, 기육은 기육이 외반된 입술을 통해 그 상태를 표현한다.

"心之合脈也, 其榮色也, 其主腎也. 肺之合皮也, 其榮毛也, 其主心也. 肝之合筋也, 其榮爪也, 其主肺也. 脾之合肉也, 其榮脣也, 其主肝也. 腎之合骨也, 其榮髮也, 其主脾也."[25]

그러므로 오장만 있고 오체가 없다면, 인체생명활동의 주체로써 오장은 그 활동 공간을 갖지 못하므로 그 작용을 발휘할 수 없다. 즉, 오장은 오체를 가짐으로써 자기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틀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행위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장과 오체는 초목의 뿌리와 가지처럼, 각기 안과 밖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원인과 결과로서 서로를 완성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體幹과 四肢

체간은 장부를 담고 있는 體腔과 九竅 중 七竅가 위치하여 神氣가 발하는 윗쪽의 頭部, 생식과 배설하는 주관하는 아랫쪽의 陰部와 퇴화된 尾部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사지는 체간을 지탱하고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신체가 운동할 수 있도록 한다.

體腔은 橫膈膜에 의해 胸腔과 腹腔으로 나뉘며, 오장의 藏器 중 心과 肺는 胸腔에 腎과, 肝, 脾는 腹腔에 위치하고 있다. 육부는 橫膈膜을 관통하여 頭部와 陰部를 한 길로 이어주고 있다. 또 頭部와 尾部는 장부의 氣가 상하로 뻗혀 나가는 身形의 兩端이다. 따라서 오장의 外候는 오체와 칠규 뿐만 아니라 장기의 위치와 공간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신형의 각 부분들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신형의 각 부분들을 장부의 공간적인 배치관계와 五行之氣의 기세에 따라 오장의 外候역할을 하며, 질병의 발생도 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素問·金匱眞言論』과 「氣交變大論」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東風生於春, 病在肝, 兪在頸項, 南風生於夏, 病在心, 兪在胸脇, 西風生於秋, 病在肺, 兪在肩背, 北風生於冬, 病在腎, 兪在腰股, 中央爲土, 病在脾, 兪在脊. 故春氣者病在頭, 夏氣者病在藏, 秋氣者病在肩背, 冬氣者病在四支."[26], "…其藏肝, 其病內舍胠脇, 外在關節. …其藏心, 其病內舍膺脇, 外在經絡. …其藏脾, 其病內舍心腹, 外在肌肉四支. …其藏肺, 其病內舍膺脇肩背, 外在皮毛. …其藏腎, 其病內舍腰脊骨髓, 外在谿谷踹膝."[27]

肝의 藏器는 體腔의 下部 胠脇 쪽에 위치하고 간에서 발동하는 木氣는 湧出하는 특성이 있으면서 氣의 시발을 담당하므로, 身形의 體幹에서 肝의 부위는 胠脇이 되고, 肝氣는 체간의 상단인 頭部와 頸項에 이르고 운동의 始發處인 關節로 통한다. 心의 藏器는 체강의 上部 胸中에 위치하고 心에서 發動하는 火氣는 發散하는 특성이 있으면서 氣의 布散을 담당하므로, 신형의 체간에서 心의 胸膺部가 되고, 心氣는 體積이 가장 확장되어 發散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胸脇部와 經絡으로 통한다. 肺의 藏器는 오장 중 最上部에 위치하고 肺에서 發動하는 金氣는 收斂하는 특성이 있어 신형의 最外部에서 활동하므로, 신형의 體幹에서 肺의 부위는 신형의 덮개가 되는 肩背가 되고, 肺氣는 皮毛로 통한다. 腎의 藏器는 오장 중 最下部에 위치하고 腎에서 발동하는 水氣는 潛藏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腎의 부위는 腰脊骨髓가 되고, 腎氣는 腰股(허리아랫쪽 사타구니), 장딴지, 무릎 등에 통한다. 脾의 藏器는 체강의 中心部 쪽에 위치하고 脾에서 발동하는 土氣는 包容, 調和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신형에서 脾의 부위는 心腹(복부 가운데)이 되고, 脾氣는 신형의 중심부인 脊椎와 身形의 가지라고 할 수 있는 四肢, 土氣를 潛藏하는 肌肉에 통한다[28].

인체라는 신형은 五神에 의해 조절되는 五行之氣의 작용에 의해 생성된 五體의 상호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25. 洪元植 精校, 上揭書, p.39.

26. 洪元植 精校, 上揭書, p.20.

27. 洪元植 精校, 上揭書, p.248.

28. 여기서는 각 藏의 기운이 지배하는 체간의 위치와 밖으로 상통하는 특정 분야만을 논하였다. 질병의 발생은 각 장부 기운의 虛實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기운의 상통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다. 즉 '腎病은 밖으로 四肢에 있다"고 하는 등인데, 이는 病機를 논할 때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신체의 어떤 부분도 오장의 氣와 상통하지 않는 곳이 없으나, 오장의 공간적인 배열과 각 氣의 특성에 따라 직통하는 부위나 구조물 등이 있어 서로 一體化되어 있다. 즉, 肝과 胠脇, 心과 胸膺, 肺와 肩背, 腎과 腰脊, 脾와 心腹 등은 空間的인 部位가 동일한 배열로 一體化되어 있으며, 肝과 頸項, 關節, 頭部, 心과 經絡, 肺와 皮毛, 腎과 腰股, 장딴지, 무릎, 脾와 肌肉, 四肢 등은 時空間을 초월하여 기능적으로 一體化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五藏之氣가 氣血을 凝集시켜 形體化된 五體로 이루어져 있다.

3) 藏府 身形과 經絡

經絡은 신체의 내부에 위치한 장부와 신체의 外的 構造를 형성하는 形體를 교통하는 인체 氣의 流注通路이다. 생명활동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장부는 신체 내부에 위치하여 신체 외부에 위치하고 있는 筋骨 등 五體와 오장의 外候인 七竅 등과 공간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다. 신체라는 하나의 틀에서 이렇게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각 분야들을 서로 연결시켜 하나의 氣 운동으로 묶어 주는 것이 바로 經絡이다. 특히 十二正經은 장부와 상호 연락을 맺음으로써 藏府와 身形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있다.

"夫十二經脈者, 內屬於府藏, 外絡於肢節."[29]

따라서 인체가 생명의 활동의 중추인 장부를 안에 두고, 각 장부의 의지를 받들어 생명활동을 구현하는 형체를 밖에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의 통일된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각자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일체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경락의 존재를 통해서 가능하다. 경락은 장부와 더불어 인체 생명활동의 주체가 되어, 안에 위치한 장부와 外候인 七竅, 五體 등이 짝을 맺어 서로 상응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의 통일된 유기체로 묶어준다.

이러한 경락은 그 작용과 순행경로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나누어 볼 수 있으니, 하나는 장부와 상통하여 신체를 종으로 六等分하여 자기가 소속하는 각 장부의 작용을 신체에서 대행하기 위하여 선처럼 뻗어 있는 經氣의 통로를 뜻하며, 다른 하나는 각 경락의 陰陽屬性에 따라 身體를 입체적으로 분할하여 각 부분별로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경락의 開闔樞를 말한다.

(1) 經氣의 通路

正經은 모두 12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手經과 足經이 각각 6개씩 짝을 구성하고 있다. 그 중 陰經은 오장과 心包를 뿌리로 하고 있으며, 陽經은 육부를 뿌리로 하여 신체의 각 부분들과 상통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論理人形, 列別臟腑, 端絡經脈, 會通六合, 各從其經, 氣穴所發各有處名, 谿谷屬骨皆有所起. 分部逆從, 各有條理. 四時陰陽, 盡有經紀, 外內之應, 皆有表裏."[30]

즉 경락의 연락을 통해서 각 부분들은 비로소 條理가 정해져 맡은 바의 역할을 수행하고 四時의 변화 즉 자연의 陰陽變化에 사람이 상응할 수 있도록 氣의 소통을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身形은 경락의 流注行路를 통해서 비로소 장부의 특성을 분할하여 나타내는 각 부분들로 범주를 정할 수 있다.

陽經은 신체의 陽部로 流注하고 陰經은 신체의 陰部로 流注해서 신체 前後, 內外를 정하고, 手經과 足經으로 나뉘어 上下를 정한다. 다시 陽經은 太陽經, 少陽經, 陽明經으로 分化하여 陽部의 外側, 가운데, 內側을 따라 흐르고, 陰經은 太陰經, 厥陰經, 少陰經으로 分化하여 陰部의 外側, 가운데, 內側을 따라 흐름으로써, 각 經脈들은 자기가 지배하는 縱的인 經氣의 통로를 확보한다[31].

이렇게 각 經脈들은 縱的인 經氣의 통로를 확보함으로써, 각 經脈들이 거쳐 지나가는 부위의 모든 것들의 성질을 特化시키고 조절하니, 이들을 『內經』에서는 十二經筋, 十二皮膚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素問·皮部論』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皮有分部, 脈有經紀, 筋有結絡, 骨有度量, 其所生病各異, 別其分部"[32]

한 경락이 지나는 부위에 위치한 근육이나 피부 등은 그 경락의 작용에 지배되며, 활동상태는 그 부위를 지배하는 경락을 따라 출입하는 氣血에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29. 洪元植 精校, 上揭書 p.174.

30. 洪元植 精校, 上揭書, p. 23.
31.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靈樞, pp.79~85.
32.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素問, p.198.

(2) 經脈의 開闔樞

十二經脈은 다시 陰陽의 三陰三陽 분화에 따라 三陰經과 三陽經으로 나뉘며, 각기 開, 闔, 樞에 分屬되어 각기 자기의 독자적인 기능을 나타내며 독자적인 분야를 갖는다. 開는 열어 펼친다는 뜻이며, 闔은 닫아 저장한다는 뜻이고, 樞는 문의 지도리처럼 열고 닫는 것을 조절한다는 뜻이다. 즉 開機能이라고 하는 것은 精神이나 氣血을 열어 펼쳐냄으로써 생명체 활동을 촉진시켜 氣를 소모시키는 것이며, 闔機能이라고 닫아 거두어들임으로써 생명체 활동을 억제하여 축적하는 것을 말한다. 樞機能은 이러한 開機能과 闔機能의 陰陽轉化가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절해주는 것을 말한다[33].

"前曰廣明, 後曰太衝, 太衝之地, 名曰少陰, 少陰之上, 名曰太陽, …… 中身而上, 名曰廣明, 廣明之下, 名曰太陰, 太陰之前, 名曰陽明. …… 厥陰之表, 名曰少陽, …… 是故三陽之離合也, 太陽爲開, 陽明爲闔, 少陽爲樞. …… 外者爲陽, 內者爲陰, 然則中爲陰, 其衝在下, 名曰太陰, …… 太陰之後, 名曰少陰, …… 少陰之前, 名曰厥陰, …… 是故三陰之離合也, 太陰爲開, 厥陰爲闔, 少陰爲樞."[34]

太陽經은 陽經의 開가 되고 太陰經은 陰經의 開가 되니, 각기 陽部와 陰部의 精神, 氣血의 發散과 推動작용을 담당한다. 陽明經은 陽經의 闔이 되고 厥陰經은 陰經의 闔이 되어 각기 陽部와 陰部의 精神, 氣血을 거두어 축적한다. 少陽經은 陽經의 樞가 되고 厥陰經은 陰經의 樞가 되어 각기 陽部와 陰部의 陰陽轉化를 조절함으로써 소모와 축적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陽經은 신체의 體表와 上部에 자기의 분야를 가지고 있고, 陰經은 신체의 體腔과 下部에 자기의 분야를 가지게 되며, 藏이나 府조차도 이 분야들 내에서 포괄할 수 있다. 柯琴은 『六經正義』에서 각 經의 분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할하고 있다.

"腰以上爲三陽地面, 三陽主外而本乎裏, 心者, 三陽夾界之地也. 內由心胸, 外自前頂, 前至額顱, 後至肩背, 下及于足, 內合膀胱, 是太陽地面, 此經統領營衛, …內自心胸至胃及腸, 外自頭顱, 由面至腹, 下及于足是陽明地面, 由心至咽, 出口頰, 上耳目, 斜至巔, 外自脇內屬膽, 是少陽地面, 此太陽差近陽明, …腰以下爲三陰地面, 三陰主裏而不及外, 腹者, 三陰夾界之地也, 自腹由脾及二腸魄門, 爲太陰地面, 自腹至兩腎及膀胱溺道, 爲少陰地面, 自腹由肝上膈至心, 從脇肋下及于少腹宗筋, 爲厥陰地面"[35]

太陽經은 身形의 心胸에서 背部와 後頭部, 膀胱, 足部에 이르는 신체의 外後面을 차지하고, 陽明經은 心胸의 食道부위로부터 위로는 顔面부위, 아래로는 음식의 소화를 담당하는 胃 및 大小腸 부위를 차지하며, 少陽經은 太陽經과 少陽經이 겹치는 咽喉와 耳目, 정수리, 脇部에서 膽에 이르는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太陰經은 육부에서 소화된 음식의 精微之氣를 받아들이는 영역으로 陽明經의 안쪽면(胃, 大小腸의 五藏쪽 면)을 차지하고, 少陰經은 腎의 藏器가 위치하는 복부의 하내측과 尿道 등 신체의 最深部를 차지하고, 厥陰經은 복부의 肝으로부터 橫膈膜 上部의 心部와 脇肋의 하내측에서 宗筋에 이르는 少腹部를 차지하고 있다.

經脈은, 身形을 縱的으로 六等分하여 관할함으로써 근원이 되는 각 藏府의 意志가 신형의 어떤 부분에서 발휘되는 가를 나타내거나(縱的인 流注), 開闔樞에 따른 立體的인 地面으로 분할하여 공간적인 위치에 따른 각 기능의 보완관계를 나타내는 가에 상관없이(立體的分割), 모두 그 부분을 관통하고 있는 경맥에 의해 그 특성이 좌우된다. 즉 太陽經의 地面은 太陽經의 작용에 相合하며, 陽明經의 地面은 陽明經의 작용에 相合한다. 단지 경맥의 縱的인 흐름은 소속 장부와 經脈의 순환경로의 일체성을 나타내고, 입체적인 분할은 氣血이 신체의 내외로 출입할 때 경맥의 순행경로 뿐만 아니라 신체 전체에서 이루어짐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2. 藏府와 身形의 病機와 病症

한의학에서 질병은 어떤 독자적인 實體로서 病體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陰陽의 調和와 五行의 轉化가 깨진 상태를 말한다. 陰陽의 조화는 神志와 肉體, 藏과

33. 朴贊國,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上, 서울, 慶熙大學校出版局, 1998. pp.131~134.
34. 洪元植 精校, 上揭書, p.29.
35. 柯琴, 傷寒來蘇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163.

府, 藏府와 經絡, 신체 각 부위 등의 상호 균형을 말하며, 五行의 전화는 오장으로 대표되는 생명체 五行之氣의 相生과 相克이 절도있게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조화와 전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平人[36]이라고 한다. 『素問·調經論』에서 이러한 平人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夫陰與陽皆有兪會. 陽注於陰, 陰滿之外, 陰陽勻平, 以充其形, 九候若一, 命曰平人."[37],

『素問·陰陽應象大論』과 『濟生方』에서는 이러한 음양오행의 조화가 인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결국 氣血의 상호 유통을 통한 陰陽 二氣의 화평한 전화에 있으며, 그 이상은 陰陽 二氣의 성쇠를 대표하는 寒熱로 나타나게 됨을 말하고 있다.

"陰勝則陽病, 陽勝則陰病, 陽勝則熱, 陰勝則寒"[38], "易曰一陰一陽之謂道, 偏陰偏陽之謂疾, 夫人一身, 不外乎陰陽氣血, 相與流通耳, 如陰陽得其平, 則疾不生"[39]

따라서 질병은 음양오행의 조화와 전화가 깨져 氣機의 절도가 무너진 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病變은 氣血의 상호전화와 운행에 장애가 생겨 陰과 陽 사이에 盛衰가 생긴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發熱이나 惡寒 등이 대표적인 病症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장부와 신형은 이러한 氣血의 음양전화를 일으키는 주체와 객체로서 陰陽의 상관관계에 따라,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氣血을 유통시켜 상호 자양함으로써 一體化되어 있다. 따라서 질병의 발생에 있어서도 각자 독립적인 病變을 가지면서도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미쳐 질병을 轉移시킬 수 있다. 즉, 발병원인과 발병부위에 따라 각기 독자적인 病變過程을 겪으면서도 어떤 단계나 시간의 경과를 넘으면 서로 이행하여 옮기기도 한다.

1) 藏府 및 身形과 病因

장부는 五神을 潛藏하고 五行의 精氣가 작용함으로써 생명활동을 영위해 나간다. 이에 반하여 신형은 오행의 정기를 바탕으로 天地의 氣(水穀 등)에서 化生한 氣血의 자양에 의지하여 형체를 生化하고 또 天地之氣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整體性을 유지하려 한다. 그러므로 신형에 둘러 쌓여있는 장부는 外氣인 天地之氣의 영향보다 자체의 부적절한 변화에 의해 五行之氣의 조화가 깨질 때 질병이 발생하기 쉬우며, 신형은 끊임없이 맞닥뜨리고 있는 外氣 즉 天地之氣의 침습에 의하여 질병을 앓기가 쉽다. 이에 대하여 『素問·調經論』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夫邪之生也, 或生於陰, 或生於陽. 其生於陽者, 得之風雨寒暑, 其生於陰者, 得之飮食居處, 陰陽喜怒."[40]

陰部 즉 체내에 위치한 장부와 신체를 구성하는 신형은 서로 氣를 주고받을 수 있는 經脈이 있어, 氣血의 소통이 원활하면 陰陽이 均平해져서 건강하지만, 風雨寒暑 등 外氣의 침범을 받으면 陽部인 신형에서 질병이 발생하고 음식이나 생활태도, 감정의 변동 등으로 藏府之氣가 격동되면 陰部인 장부에서 질병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다.

전자를 보통 內因이라고 하고 후자를 外因이라고 한다. 陳無擇은 『三因極一病證方論』에서 장부에서 병을 일으키는 邪氣를 七情이라 하고, 신형에서 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六淫이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外外則氣血循環, 流注經絡, 喜傷六淫. 內則精神魂魄志意思, 喜傷七情. 六淫者, 寒暑燥濕風熱, 是. 七情者, 喜怒憂思悲恐驚, 是. 若將護得宜, 怡然安泰, 役冒非理, 百病生焉."[41]

寒暑燥濕風熱 등 六淫은 외부에서 침범하여 신형을 병들게 하는 것으로 경락의 氣血循環을 손상시켜 병을 일으키며, 喜怒憂思悲恐驚 등 七情은 오장이 潛藏하는 精神魂魄志意思 등의 조화를 깨트려 병을 일으킨다고 하고 있다. 즉 외계에서 침범하는 六淫 등 外邪는 신형의 氣血循環을 주도하는 경락의 순행에 이상을 유발하여 身形之病을 일으키고, 마음 상태의 기복 등 자체의 부조화에서 발생하는 七情 등 內因은 藏府之氣 陰陽五

36. 한의학에서는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을 '平人'이라고 한다.
37. 洪元植 精校, 上揭書, p.218.
38. 洪元植 精校, 上揭書, p.23.
39. 嚴用和, 濟生方-中國醫學大系11, 商務印書館 影印, p.451.
40. 洪元植 精校, 上揭書, p.218.
41. 陳無擇, 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19.

行의 균형과 전화에 이상을 일으켜 藏府之病을 일으키는 것이다. 景岳은 이를 人事와 氣交로써 논하고 虛實, 寒熱로써 구분하고 있으며, 東垣은 『內外傷辯』에서 六淫에 의한 外感으로 일어나는 병은 有餘한 實證이라 하고 內傷에 의한 병을 不足한 虛證이라고 하고 있다.

"人事之病, 由于內, 氣交之病, 由于外, 寒熱之表裏, 當知, 寒熱之虛實, 亦不可不辨"[42], "外感, …… 乃有餘證也. 內傷, …… 皆不足之病也."[43]

병은 寒熱과 虛實로서 그 성질을 규정할 수 있는데, 人事 즉 喜怒 등 七情이나 생활상태(過勞나 飮食不節, 房勞 등)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질병은 내부의 오장(裏)에서 일어나고, 氣交 즉 천지의 氣候變化에 잘못 대응하여 생기는 질병은 신형(表)에서 일어나는데, 이들은 모두 惡寒이나 發熱 등 陰陽의 寒熱變化와 虛實 즉 正氣와 邪氣의 盛衰로 대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六淫 등 외기의 침범으로 인해 일어나는 병은 주로 有餘한 實證으로, 七情 등 內傷으로 인한 병은 주로 不足한 虛證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七情 등에 의해 발생한 內傷病은 虛證으로 발전하고, 六淫 등 外感으로 인한 外感病은 實證으로 발전하기 쉽지만, 外因과 內因 이 두 가지가 완전히 二分되어 질병을 일으킬 수는 없다. 邪氣의 침범이 맹렬하다 할지라도 생명체를 지키는 正氣가 강건하면 邪氣가 인체에 침범할 수 없고 또 正氣의 화평한 변화를 깰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素問·通評虛實論』과 「評熱病論」 등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邪氣所注, 其氣必虛"[44], "邪氣盛則實, 精氣奪則虛"[45]

正氣와 邪氣는 서로 拮抗관계에 있어, 邪氣가 침범하거나 발생하여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까닭은 正氣의 虛弱이 전제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七情 등 內因이 오장의 五神을 어지럽힘으로써 五行之氣의 전화를 깨뜨려 內傷病을 일으키거나, 六淫 등 外因이 경락의 氣血循環 기능을 紊亂시켜 外感病을 일으키는 병변 과정 중에서, 내인이나 외인은 서로 독립적으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또한 서로 촉발시키는 작용도 함을 알 수 있다. 즉 수족의 마비나 관절의 疼痛, 浮腫 등 신형의 질병은 경락의 기혈순환 기능을 紊亂시키는 六淫 등에 의해 발생하지만 그 이면에는 藏府之氣의 손상이 내재되어 있고, 神志의 혼란이나 허약, 피로, 대소변의 이상 등 장부의 질병은 五神을 어지럽히는 七情 등에 의해 발생하지만 그 촉발인자로서 風寒 등 外感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藏府의 病機와 病症

五神을 潛藏하고 있는 오장과 水穀의 출입을 담당하는 육부는 질병의 원인이나 病症에 있어 서로 차이가 있다. 『靈樞·脈度』에서 오장병과 육부병의 특징에 대하여 九竅의 상태를 통해 간략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五藏不和, 則七竅不通, 六府不和, 則留爲癰"[46]

七竅는 五神의 출입을 담당하는 곳으로 七竅가 통하지 못하는 것은 곧 오장의 神志가 어두워진 것이며, 癰은 濁氣가 배설되지 못하고 鬱滯되어 발생하니 六府疏導作用의 이상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오장과 육부의 질병의 특징을 크게 분류하면, 精神氣血을 근원으로 하여 발동하는 神志와 관련된 질병을 오장병이라 하고, 水穀之氣의 섭취와 배설에 관련된 질병을 육부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장 중에 脾는 神志보다는 營 즉 水穀之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육부 중 膽은 '中正之官으로써 決斷을 내므로' 神志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또 신형은 장부의 外形이 되므로, 장부 자체에 이상이 생겨 발생한 장부지병에 신형의 이상이 병발한다.

따라서 본 편에서는 장부 자체의 병기와 장부지병이 신형으로 전변되어 발생하는 장부 및 신형의 병기와 병증에 대해, 오장과 육부로 분할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五藏의 病機와 病症

오장은 각기 자체의 고유한 氣가 있으니, 肝은 血로, 脾는 營으로, 心은 脈으로, 肺는 氣로, 腎은 精으로 대변할 수 있다. 오장은 이러한 血, 營, 脈, 氣, 精 등 五藏之氣를 바탕으로, 魂, 意, 神, 魄, 志 등 五神

42. 張介賓, 景岳全書上, 서울, 大成文化社 影印, 1988, p.15.
43. 李東垣, 內外傷辨-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成文化社 影印, 1983, p.31.
44. 洪元植 精校, 上揭書, p.68.
45. 洪元植 精校, 上揭書, p. 107.
46.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靈樞, p.115.

의 의지를 실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五藏之氣가 허약해지면, 이는 곧바로 五神의 失調를 일으켜 오장을 병들게 한다.

① 肝의 病機와 病症

肝은 魂을 潛藏하고 木氣를 發動하는 藏으로 七情 중 怒氣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며, 血을 潛藏하므로 肝氣가 상하면 血病이 발생한다[47]. 즉 肝氣는 항상 上逆하기 쉬운데 惡血이 있는 상태에서 怒氣가 일어 肝氣를 上逆시키면 肝이 손상되어 肝病을 앓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간의 병증 또한 肝氣의 허실에 따른 神志 發動의 强弱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靈樞·本神』에서 肝氣의 虛實에 따른 병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肝藏血, 血舍魂, 肝氣虛則恐, 實則怒,"[48]

肝氣가 過盛해지면 神志가 강성해져 쉽게 怒氣를 발동하는 상태가 되고, 반대로 肝氣가 衰弱하면 神志가 위축되어怒氣를 발동하지 못하고 도리어 두려움이 일게 된다.

또한 간병의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氣가 上逆하여 上實下虛의 病情이 유발되므로, 그 병변은 신체에서는 上部의 頭目에 나타나기 쉽고, 時期的으로는 陽氣가 湧出하는 봄에 나타나기 쉽다. 이에 대하여 『素問·金匱眞言論』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東風生於春, 病在肝, 俞在頸項, …… 故春氣者病在頭, …… 故春善病鼽衄,"[49]

肝氣의 氣勢에 이상이 생기면 頸項과 頭部에 병변을 일으켜서 頭痛이나 鼻衄 등의 병증을 일으키는데, 이는 肝氣인 木氣의 湧出작용이 지나쳐 身形의 상충부로 肝氣가 과도하게 몰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氣機의 上盛상태에서 발생하기 쉬운 病症이 中風이나 신체의 균형상실, 眩暈 등이다[50]. 또 肝은 筋膜과 關節을 조정하여 신체의 운동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므로, 관절과 근막의 변형[51], 신체의 운동이상이나 균형실조 등도 간병의 범주에 들어간다[52]고 할 것이다. 또 간의 藏器는 橫膈膜 下部로 脇肋에서 少腹 걸치고 氣勢가 위로 頭部 아래로 陰莖에 미치므로, 그 신형의 病症은 兩脇下痛이 있으면서 아랫배가 당기고, 氣가 上逆하면 頭痛, 耳聾 등이 발생하는데 虛實에 따라 차이가 있다[53].

이렇게 간병은 오장 중 心과 더불어 신지를 주도하는 장으로 그 병변은 神志의 강약에 따른 怒情의 促急이나 恐情으로 나타나며, 그 기세가 上逆하기 쉽고 藏血하므로, 鼻衄이나 瘀血 등 血의 병변을 쉽게 일으킨다. 또 그 병변이 身形으로 파급되면 신체의 운동능력과 균형능력의 減弱을 야기하고, 肝氣의 영향이 미치는 脇肋部와 少腹, 陰莖, 頸項과 頭部, 關節, 筋膜 등에 병변을 일으킬 수도 있다.

② 心의 病機와 病症

心은 神을 潛藏하고 火氣를 發散하는 藏으로 七情 중 喜氣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또 神明을 주재하는 장으로 肝과 더불어 神志의 질병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靈樞·五邪』와 「本神」에서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邪在心, 則病心痛, 喜悲, 時眩仆"[54], "心藏脈, 脈舍神, 心氣虛則悲, 實則笑不休."[55]

神明을 주재하여 神志를 발동하는 心은 이상이 생기면 가장 먼저 神志에 이상이 생겨 喜悲 등 감정에 절도가 없어지고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한다. 또 心氣의 허실에 따라, 氣가 허약하면 神志가 우울해져 悲證을 앓게 되고 氣가 過實하면 神志가 들떠 웃음이 그치지 않는 笑證을 앓게 된다. 또 心氣에 이상이 생기면 火氣의 發散에 이상이 생겨 內虛外實의 상태에 이르게 되며, 이러한 상태는 시기적으로 여름에 유발되기 쉽다.

"南風生於夏, 病在心, 俞在胸脇, …… 夏氣者病在藏, …… 仲夏善病胸脇,"[56]

心氣의 氣勢에 이상이 생기면 胸脇과 體腔 내에 병

47. 洪元植 精校, 上揭書, p.36. "有所墮墜, 惡血留內, 若有所大怒, 氣上而不下, 積於脇下, 則傷肝."
48. 洪元植 精校, 上揭書, p.68.
49. 洪元植 精校, 上揭書, p.20.
50. 洪元植 精校, 上揭書, p.303. "諸風掉眩, 皆屬於肝"
51. 洪元植 精校, 上揭書, p.166. "肝氣熱, 則膽泄口苦, 筋膜乾, 筋膜乾則筋急而孿, 發爲筋痿."
52.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靈樞, p.128. "邪在肝, 則兩脇中痛, 寒中, 惡血在內, 行善掣節, 時脚腫."
53.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素問, p.89. "肝病者, 兩脇下痛引少腹, 令人善怒, 虛則目晾晾無所見, 耳無所聞, 善恐如人將捕之, 取其經, 厥陰與少陽, 氣逆, 則頭痛耳聾不聰頰腫, 取血者."
54. 洪元植 精校, 上揭書, p.128.
55. 洪元植 精校, 上揭書, p.69.
56. 洪元植 精校, 上揭書, p.20.

변(病在藏)을 일으켜서 胸中痛이나 胸脇痛 등의 병증을 일으키는데, 이는 火氣의 발산이 과도하게 일어나서 體腔部에 허탈현상 일어났기 때문이다. 반대로 火氣가 정상적으로 발산하지 못하거나 過盛하여 피부에 鬱滯되면 피부의 병변을 일으킨다[57]. 즉, 心이 방출하는 火氣가 원활하게 體表로 발산하지 못하고 身形의 체표에 鬱滯되면, 신형을 鬱蒸하거나 태우게 되므로 가벼우면 痛症이나 瘙癢 등이 발생하고 심하면 化膿시켜 瘡瘍 등을 야기시킨다.

또한 心은 혀를 주관하고 脈을 주재하므로 신형의 病變에서 혀나 맥의 이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58][59]. 심의 精氣가 끊어져 火氣가 혀로 이르지 못하면 外候인 혀가 자양을 잃어 말리므로 말을 할 수 없게 되고, 심의 體인 血脈은 血을 정상적으로 운행시키지 못하는 心痺와 같은 병을 앓게 된다. 심의 藏器는 胸中에 위치하고 氣勢가 사방으로 布散하므로, 그 신형의 병증은 胸中痛을 기본으로 하여, 기세의 영향에 따라 脇支滿, 脇下痛, 膺背肩胛間痛, 兩臂內痛, 脇下與腰背相引而痛 등 胸中을 둘러싼 사방 부위로 그 영향을 미쳐 병변을 일으킨다[60].

心은 神志를 發動(神明出焉)하여 생명활동을 주관하는 五藏 중의 大主로 五神의 盛衰는 모두 心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心病의 특징은 神志의 이상에 의한 의식의 혼란, 감정조절의 불능 정신질환 등이 주종을 이룬다. 그러나 心도 여타 장과 마찬가지로 주재하는 外候와 體가 있으므로, 心이 병들면 혀와 血脈의 병변을 야기시키며, 火氣의 發散이 과도하여 內氣를 허탈하게 하면 내장의 병을, 過盛하여 皮膚에 鬱滯되면 피부의 병변과 통증 등을 일으킨다.

③ 脾의 病機와 病症

脾는 意를 潛藏하고 土氣를 發揚하는 藏으로 七情 중 思氣와 意氣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水穀의 精微之氣를 전신으로 공급하여 身形과 藏府를 자양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신형과 관련된 질병들이 가장 많다. 『靈樞·本神』에서 脾氣의 虛實에 따른 병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脾藏營, 營舍意, 脾氣虛則四肢不用, 五臟不安, 實則腹脹經溲不利."[61]

脾는 倉廩之官(혹 諫議之官)으로 오장과 신형을 자양하므로, 氣가 허약하면 形氣가 결핍되어 四肢 등 신체의 氣力이 약해지며 오장의 활동이 조화를 잃고, 氣가 過實하면 形氣가 過盛해져 腹部(大腹)의 脹滿과 대소변의 이상 등 地氣(水穀之氣) 轉化의 失調로 나타난다. 또한 脾는 中州를 담당하여 신형의 중심인 脊椎에 영향을 미친다[62]. 그러므로 脾氣의 기세에 이상이 생기면 脊椎에 병변을 일으키고 洞泄이나 寒中 등 복부의 失調를 일으키는데, 이는 土氣가 지나쳐 形氣가 과도해져서 精氣(水氣)의 결정체인 骨(脊椎)가 허약해지고 六府에 濕邪가 발생하기 때문이다[63].

脾는 肌肉을 주재함으로서 형체의 성쇠에 오장 중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병변도 형체의 성쇠를 결정하는 肌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64][65]. 脾의 藏器는 中部에 위치하지만 身形을 자양하는 과정 중에 運化不利가 발생하여 수곡의 濁氣(濕邪)가 울체되면, 身重, 足不收, 善瘈, 脚下痛 등 전신에서 氣의 흐름이 沮滯된 病變을 일으키며[66], 濕邪가 신형의 외측에 맺히면 浮腫이나 脹滿 등이 생긴다.

脾는 인체활동에 필요한 영양물질을 공급하는 장으로 인체 모든 기관의 활동은 脾氣의 성쇠에 좌우된다. 따라서 비가 병들면, 實證으로는 腹脹이나 大小便不利 등 濁氣가 體內에 沮滯되어 발생하는 병변이 일어나고, 虛證으로는 肌肉이 말라 身形이 쇠약해지고 운동능력이 무력해지는 상태가 야기된다. 또 濕邪가 넘치면 腎

57. 洪元植 精校, 上揭書, p.304. "諸痛痒瘡, 皆屬於心"
58.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靈樞, p.186. "心病者, 舌卷短, 顫赤"
59.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素問, p.162. "心痺者, 脈不通"
60. 洪元植 精校, 上揭書, p.89. "心病者, 胸中痛, 脇支滿, 脇下痛, 膺背肩甲間痛, 兩臂內痛. 虛則胸腹大, 脇下與腰相引而痛, 取其經, 少陰太陽, 舌下血者. 其變病, 刺郄中血者."
61.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靈樞, p.69.
62.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素問, p.20. "中央爲土, 病在脾, 俞在脊. …"
63. 洪元植 精校, 上揭書, p.304. "諸濕腫滿, 皆屬於脾"
64. 洪元植 精校, 上揭書, p.166. "脾氣熱, 則胃乾而渴, 肌肉不仁, 發爲肉痿"
65.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靈樞, p.128. "邪在脾胃, 則病肌肉痛, …"
66.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素問, p.89. "脾病者, 身重善肌肉痿, 足不收, 行善瘈, 脚下痛. 虛則腹滿腸鳴, 飧泄食不化. 取其經, 太陰陽明少陰血者."

水를 剋制하여 척추 등 骨格의 衰弱을 불러일으키고 浮腫이나 脹滿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④ 肺의 病機와 病症

肺는 魄을 潛藏하고 金氣를 發揚하는 藏으로 七情 중 悲氣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氣를 주재하여 호흡을 주관한다. 또한 肺는 藏府의 덮개로서 호흡을 통해 體內外 氣의 出入을 조절하므로 폐가 병들면 호흡작용과 체내 氣의 운행에 이상을 초래한다. 따라서 氣가 허약하면 鼻塞, 不利少氣 등 納氣에 이상이 생기고, 氣가 過實해지면 喘喝이나 胸盈仰息 등 出氣에 이상이 생길 뿐만 아니라, 전신에서 일어나는 氣의 소통장애가 생긴다. 따라서 肺氣에 이상이 생기면 호흡과 관련된 질병과 흉중질환이 多發한다. 『靈樞·本神』과 『素問·至眞要大論』에서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肺藏氣, 氣舍魄, 肺氣虛則鼻塞不利少氣, 實則喘喝胸盈仰息."[67], "諸氣膹鬱, 皆屬於肺"[68]

身形에서 폐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위는 肩背部와 皮毛 및 玄府 등이다. 그러므로 폐가 병들면, 이들 부위에 영향이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가을에 발생하기 쉽다[69].

肺氣의 氣勢는 收斂시켜 凝縮시키는 데 있으므로, 身形에서 肺의 收斂작용을 대행하는 肩背部와 皮毛 등에서 氣가 鬱滯되어 病變이 발생한다. 즉 收斂작용이 일어날 때는 肩背部와 皮毛에 氣가 과도하게 몰리는데, 체내의 濁氣가 배설되지 못하고 胸中이나 皮膚 내에 쌓여 있으면 收斂된 氣가 갈 곳을 잃어 肩背部나 皮毛 등에서 서로 부딪히므로 氣가 上衝하기 때문이다[70].

또한 肺가 주재하는 皮毛는 인체를 자양하고 영위하는 津液을 約束하여 身形을 이루는 五體의 潤澤과 탄력을 유지시켜 준다. 따라서 皮毛가 熱을 받아 津液의 보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五體가 말라 痿躄(痿證)을 앓게 한다[71]. 肺의 藏器는 胸部에서 心을 감싸고 신형의 표면에서 氣를 거두는 작용을 하므로, 逆氣로 인해 肩背痛이나 사타구니, 무릎, 장딴지, 다리 등에서 氣의 收斂으로 인한 緊痛이 발생한다[72].

肺는 濁氣를 排泄하고 淸氣를 收斂하여 身形을 충실하고 윤택하게 하면서 腎水를 자양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폐가 호흡을 통하여 氣의 출입을 조절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肺의 병변은 이러한 氣의 출입작용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므로 주된 증상은 喘息이나 咳嗽, 汗出, 寒熱 등 호흡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신형의 병변으로 전변되면 皮膚痛이나, 肩背疾患 등이 나타난다.

⑤ 腎의 病機와 病症

腎은 志를 潛藏하고 水氣를 發動하는 藏으로 七情 중 恐氣나 驚氣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또 陽氣를 凝縮한 陰精을 潛藏함으로써 인체 陰陽 二氣의 盛衰와 五藏의 强弱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生殖力을 발휘할 수 있는 生氣의 源泉處이기도 하다[73]. 따라서 인체 陰陽 二氣의 성쇠는 腎의 虛實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靈樞·本神』에서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腎藏精, 精舍志, 腎氣虛則厥, 實則脹, 五藏不安."[74]

厥冷은 陽氣가 쇠약하여 身形 특히 四肢를 溫煦시키지 못하여 발생하는 병증이며, 少腹脹滿은 腎의 陰化작용이 過盛하여 陰中之陰部인 少腹部에 陰氣가 지나치게 凝縮되어 布散되지 않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오장도 陽氣를 받지 못하여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腎氣의 氣勢는 陽氣를 응축시켜 潛藏하므로 身形에서는 下內側의 腰와 股로 氣가 쏠린다. 따라서 天地의 陽氣가 잠장하는 계절인 겨울에 身形의 外側 末端處인 四肢에 陽氣가 부족하기 쉬워 痺厥 등을 寒氣로 인한 질병을 앓기 쉽다[75][76].

또한 腎은 五體 중 骨格의 성쇠를 담당하므로 骨格

67.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靈樞, p.69.
68.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素問, p.304.
69. 洪元植 精校, 上揭書, p.20. "西風生於秋, 病在肺, 兪在肩背, …秋氣者病在肩背, …秋善病風瘧, …"
70.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靈樞, p.128. "邪在肺, 則病皮膚痛, 寒熱, 上氣喘, 汗出, 咳動肩背"
71.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素問, p.166. "肺熱葉焦, 則皮毛虛弱急薄著, 則生痿躄也."
72. 洪元植 精校, 上揭書, p.89. "肺病者, 喘欬逆氣, 肩背痛, 汗出尻陰股膝, 髀腨胻足皆痛. 虛則少氣不能報息, 耳聾嗌乾."
73. 洪元植 精校, 上揭書, p.11. "腎者, 主水, 受五藏六府之精而藏之, 故五藏盛, 乃能瀉, 今五藏皆衰, 筋骨解墮, 天癸盡矣."
74.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靈樞, p.69.
75.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素問, p.20. "北風生於冬, 病在腎, 兪在腰股, …冬氣者病在四支. …冬善病痺厥."
76. 洪元植 精校, 上揭書, p.304. "諸寒收引, 皆屬於腎"

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腰脊을 중심으로 한 척추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77], 陽氣를 끌어내려 身形의 下體를 溫煦, 滋養시키므로, 腎에 이상이 생기면 腰部와 頸項 등 척추부와 下體에 이상 病變을 일으킨다[78][79]. 따라서 腰部를 중심축으로 한 척추 등 골격의 제 질환과 하체의 질환, 體腔의 下部인 하복부와 관련된 모든 病變은 주로 腎의 이상으로 인해 야기된 질환들임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腎의 上部 外候인 귀[80]와 하부의 尿道와 肛門 등의 질환 등이 모두 腎과 관련을 맺고 있다.

腎은 인체의 陽氣를 陰化시켜 精으로 凝集하여 潛藏하는 작용을 함으로써 骨格을 기르고 신형을 굳건하게 한다. 그러므로 陽氣가 虛弱하거나 陰化작용이 강해 陰寒之氣가 응성해지면 四肢 등 陽氣가 도달하기 힘든 신체의 말단부위에 厥冷 등을 일으키기 쉽고, 骨髓를 자양하여 骨格을 기르지 못하면 腰脊을 비롯한 頸項, 정강이뼈 등을 약화시켜 골질환을 일으킨다. 또 腎의 藏器는 下腹部에 위치하므로, 腎의 陰氣가 강성하면 하복부에 陰寒之氣가 쌓여 少腹痛, 腹大(少腹大). 腹部疼痛, 身重 등 氣가 하복부로 몰려 전신으로 잘 흐르지 못해서 생기는 제 병변이 나타난다[81].

(2) 六府의 病機와 病症

육부는 오장의 활동을 보좌하여 身形을 자양한다. 특히, 膽을 제외한 胃, 大腸, 小腸, 三焦, 膀胱 등은 脾가 運行하는 營血을 생산하기 위하여 수곡의 出納을 담당하므로[82], 이들의 病變은 消化, 排泄작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膽은 오장과 육부의 陰陽轉化를 조절하여 오장의 意志가 육부 안에서 잘 시행 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83]. 그러므로 膽의 병변은 여타 府의 病變과 달리 神志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84].

그러므로 膽을 제외한 六府의 자체 病變은 수곡 출납의 이상이 어떤 府에서 일어났는 가를 알려주며, 膽의 病變은 육부를 조절하는 오장의 神志調節을 膽이 완수하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① 膽의 病機와 病症

膽은 비록 六府에 속하지만 그 작용은 오장의 神志를 조절하는 작용과 관련이 깊다. 그러므로 膽의 病證은 肝, 心과 더불어 神志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膽汁은 苦味를 띠므로 膽에 이상이 생기면, 쓴맛을 느낀다. 『靈樞·邪氣藏府病形』에서 담의 病症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膽病者, 善太息, 口苦, 嘔宿汁, 心下澹澹, 恐人將捕之, 嗌中吩吩然, 數唾."[85]

膽이 병들면 神志가 위축되어 이를 해소하려고 자꾸 한숨을 쉬고 두려움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며 목구멍에 걸리는 느낌 즉 梅核氣가 있어 자주 침을 뱉어 답답함을 해소하려 하며 膽汁이 胃와 食道를 통해 上逆하여 입이 쓰다.

또한 膽의 藏器는 肝의 內下部에 위치하므로 身形으로 병변이 나타날 때에는 脇下部에 영향을 미친다[86].

그러므로 膽의 病變은 오장 중 肝, 心함께 神志의 이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六府와 관련되어서는 口苦 등 담즙의 배설 이상으로 나타나며, 身形에 영향을 미치면 脇下部의 이상을 초래한다.

② 胃의 病機와 病症

胃는 藏府 중 水穀之氣를 받아들이는 중추로서 인체 氣血의 盛衰를 결정한다. 따라서 胃와 연속되어 있는 大腸이나 小腸 뿐만 아니라 여타 장부의 성쇠도 胃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다. 『靈樞·海論』에서는 胃를 水穀之海라고 하여 그 중요성을 천명하고 있다.

77. 洪元植 精校, 上揭書, p.57. "腰者, 腎之府, 轉搖不能, 腎將憊矣"
78. 洪元植 精校, 上揭書, p.231. "腎病, 少腹腰脊痛, 骭痠"
79.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靈樞, p.128. "邪在腎, 則病骨痛陰痺, 陰痺者, 按之而不得, 腹脹腰痛, 大便難, 肩背頸項痛, 時眩"
80. 洪元植 精校, 上揭書, p.255. "耳焦枯受塵垢, 病在骨"
81.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素問, p.89. "腎病者, 腹大脛腫, 喘欬身重, 寢汗出憎風. 虛則胸中痛, 大腹小腹痛, 清厥意不樂."
82. 洪元植 精校, 上揭書, pp.36~37. "胃大腸小腸三焦膀胱者, 倉廩之本, 營之居也, 名曰器, 能化糟粕, 轉味而入出者也, 其華在脣四白, 其充在肌, 其味甘, 其色黃, 此至陰之類, 通於土氣."
83. 洪元植 精校, 上揭書, p.37. "凡十一藏取決於膽也."
84. 洪元植, 精校, 上揭書, p.92. "五氣所病, …胃爲氣逆爲噦爲恐, 大腸小腸爲泄, 下焦溢爲水, 膀胱不利爲癃, 不約爲遺溺, 膽爲怒, 是謂五病."
85.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靈樞, p.40.
86. 洪元植 精校, 上揭書, p.178. "膽脹者, 脇下脹痛, 口中苦, 善太息"

"胃者, 水穀之海, …… 水穀之海有餘, 則腹滿. 水穀之海不足, 則饑不受穀食."[87]

胃는 水穀之海로서 體腔의 가운데에서 음식물의 流入과 放出에 따라 차고 비는 하나의 空間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糟粕을 大小腸으로 전도하지 못하여 계속 차 있으면 腹部가 脹滿해지고, 허약하여 水穀을 腐熟하지 못하면 곡식을 받아들일 수 없는 病症을 앓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는 음식의 섭취나 배설과 관련된 질환을 앓기 쉽다[88]. 胃病을 앓는 사람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능력이 떨어져 宿食이 항상 胃腸에 쌓여 있으므로 腹部가 膨脹하고 목구멍에서 위로 통하는 胃脘部位에 통증이 있다. 또 上下의 交通이 막혀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즉 음식을 위에서 受容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霍亂[89]이나 惡聞食臭[90] 등의 병증이 나타나기 쉽다.

그러므로 胃의 病症은 음식의 수납과 배설과 관련되어 있으며, 病變은 음식의 出入路인 입부터 목구멍, 胃府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③ 大腸의 病機와 病症

大腸은 水穀의 糟粕으로부터 대변을 만들어 體外로 배설시키는 府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病變이 대변의 상태와 관련되어 있으며, 胃, 小腸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靈樞·師傳』에서 大腸과 胃의 寒熱관계와 大便의 상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胃中熱則消穀, 令人縣心善飢, 臍以上皮熱. 腸中熱, 則出黃如糜, 臍以下皮寒. 胃中寒, 則腹脹, 腸中寒, 則腸鳴飧泄. 胃中寒, 腸中熱, 則脹而且泄. 胃中熱, 腸中寒, 則疾飢, 小腹痛脹."[91]

大腸은 胃와 대립적으로 寒熱이 교차하며, 熱이나 寒이 있으면 대변이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물크러져 나오는데, 熱이 있으면 黃色을 띠면서 죽처럼 나오고, 寒이 있으면 腸鳴이 있고 아랫배가 脹滿하면서 음식이 소화되지 않는 상태의 泄瀉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大腸病은 대변의 상태를 나쁘게 하며 복부의 脹滿을 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④ 小腸의 病機와 病症

小腸은 胃에서 腐熟된 糟粕을 받아 淸濁을 분리하여 大小便의 상태를 결정한다[92]. 또한 그 위치가 臍腹에 걸쳐 있다. 따라서 病變도 수곡의 寒熱에 의한 淸濁 이상과 복부의 통증으로 나타난다. 『素問·擧痛論』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寒氣客於小腸, 小腸不得成聚, 故後泄腹痛矣. 熱氣留於小腸, 腸中痛, 瘅熱焦渴, 則堅乾不得出, 故痛而閉不通矣."[93]

그러므로 小腸病은 腹痛과 便秘, 泄瀉 등으로 나타나니, 胃나 大腸의 病變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⑤ 膀胱의 病機와 病症

膀胱은 六府 중 小便의 생성과 배설을 담당하고 하복부에 위치한다. 『靈樞·邪氣藏府病形』과 『素問·脈要精微論』에서 膀胱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膀胱病者, 小腹偏腫而痛, 以手按之, 則欲小便而不得."[94], "水泉不止者, 是膀胱不藏也."[95]

그러므로 膀胱의 病變은 소변의 상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주로 下腹部에서 나타난다. 즉 소변의 遺泄이나 癃閉 등 소변상태의 불량 등과 하복부의 腫滿 등은 방광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⑥ 三焦의 病機와 病症

三焦는 決瀆之官으로서 인체 水濕의 통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그 병변은 水道를 주재하는 방광 및 인체 水濕의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96]. 이에 대하여 『靈樞·邪氣藏府病形』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三焦病者, 腹氣滿, 小腹尤堅, 不得小便, 窘急, 溢則水留, 卽爲脹."[97]

그러므로 三焦病은 방광병과 마찬가지로 小便 排泄에 장애가 오거나 체표에서 水濕이 맺혀 발생하는 浮腫 등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87. 洪元植 精校, 上揭書, p.174.
88. 洪元植 精校, 上揭書, p.39. "胃病者, 腹膨脹胃脘當心而痛, 上肢兩脇, 膈咽不通, 食飮不下, …"
89. 洪元植 精校, 上揭書, p.176. "亂於腸胃, 則爲霍亂."
90.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素問, p.185. "所謂惡聞食臭者, 胃無氣, 故惡聞食臭也."
91. 洪元植 精校, 上揭書, p.164.
92. 李梴, 醫學入門, 서울, 大成文化社 影印, 1989, p.95. "小腸者, 受盛之官, 化物出焉, 凡胃中腐熟水穀, 其滓穢, 自胃之下口, 傳入於小腸上口, 自小腸下口, 泌別淸濁, 水入膀胱上口, 滓穢入大腸上口"
93. 洪元植 精校, 上揭書, p.145.
94.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靈樞, p.40.
95.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素問, p.57.
96. 洪元植 精校, 上揭書, p.34. "三焦者, 中瀆之腑也, 水道出焉, 屬膀胱, 是孤之府也."
97.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靈樞, p.39.

오장의 기본 病症은 각 藏의 기능에 따라 神志와 身形 양 방면으로 나뉘고, 氣의 虛實에 따라 병증도 虛 또는 實두 부류로 분화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오장 중 陽化를 주도하는 藏(陰中之陽인 肝과 陽中之陽인 心)은 陽化의 이상 곧 神志의 질병으로 드러나며, 陰化를 주도하는 藏(陰中之陰인 腎, 陽中之陰인 肺, 陰中之至陰인 脾)은 陰化의 이상 곧 形體의 질병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오장 자체의 병증은 五藏之氣의 虛實에 따른 精, 神, 氣, 血의 성쇠나 기능의 상실,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五行之氣의 기세가 천지자연의 변화에 따라 거슬려 각 장부가 氣機가 조화를 잃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오장의 五行之氣 盛衰는 天地의 時間的인 변화(계절)에 따라 氣勢가 바뀌므로, 時期나 五藏之氣의 盛衰에 영향을 받아 변하는 氣勢의 상태에 따라 각 藏의 空間的인 배열구도에 따라 관련된 身形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각 藏府之氣와 相通하는 五體와 九竅의 성쇠를 좌우함으로써 각기 독특한 病變을 일으키고 있다. 반면에 六府는 體腔의 중심을 管처럼 관통하면서 水穀의 轉化와 吸收, 排泄에 관련된 대사에 그 역할이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病機도 이들 전화과정의 파탄과 육부의 기능실조가 공간 배열상 근접한 주변부위의 氣機不利를 야기시키는 機轉으로 발현하니, 腹痛이나 腹滿, 大小便不利, 음식물의 섭취와 소화장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지 오장 중 脾는 胃를 대신하여 水穀之氣를 散布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육부의 상태와 직결된 병변이 많이 나타나고, 육부 중 膽은 神志의 發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장이 주재하는 神志와 관련된 病變이 많이 나타난다.

3) 身形의 病機와 病症

身形은 五體로 상호 결합으로 이루어져, 안으로 藏府를 감싸고 밖으로 오장의 外候인 九竅를 열어 놓고 있다. 또 經絡을 통하여 장부와 相通하여 오장의 주재를 받고 氣血의 공급을 받아 생명활동의 空間的인 場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형의 病變은 경락의 순행노선에 따른 분포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장부의 상태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신형의 病變은 신형을 경락의 開闔樞에 따라 內外, 表裏 등으로 分割하여 발생하는 立體的인 病變과 신형을 縱的으로 六等分하여 분할하는 경락 순행노선 상 病變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분할은 경락의 二重的인 속성 즉 身體가 外界와 氣를 出入할 때 각 經絡間의 독자적인 역할분담과 장부가 경락을 통해 신체를 주재할 때 각 경락의 分派的인 分布때문이다.

(1) 身形의 立體的 病機와 病症

經絡의 開闔樞는 천지자연과 인체가 서로 氣를 교환하는 과정을 신체 각 부분간의 역할분담에 따라 분할한 것이다. 따라서 病變도 이러한 氣交 중에 일어나는 天地의 外氣와 인체의 正氣 사이에 일어나는 부적절한 충돌때문에 일어난다. 또 나타나는 病症도 發熱, 惡寒 등 국소적인 것보다 全身的인 형태가 대부분이니, 이는 正氣와 邪氣가 투쟁하는 場은 한 경락이 지배하는 身形의 특정 부분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여기에 관여하는 正氣의 盛衰는 특정 부위의 正氣로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外感 傷寒이나 溫病 등 전염성 질환에서 많이 나타난다.

① 開의 病機와 病症

開機能을 담당하는 經絡은 太陽經과 太陰經이다. 太陽經은 身形의 가장 外表에 위치하여 外界로 자기의 正氣를 發散함으로써 신체를 邪氣로부터 보호하고, 太陰經은 三陰經 중 가장 외부에 위치인 陽明經의 안쪽에 위치하여 陽明經으로부터 傳受받은 外氣(天氣나 地氣 등 생존에 필요한 精氣)를 전신으로 散布한다. 또한 太陽經은 身形 전체의 덮개가 되고, 太陰經은 體腔의 五藏쪽 면을 감싸고 있어 오장의 덮개가 된다.

가. 太陽經의 病機와 病症

太陽經은 三陽經의 表로 身形의 가장 外表部에 위치하고 체내 正氣의 發散을 주관하므로, 태양경이 병에 걸리면 正氣의 發散상태가 실조되어 腠理의 開闔에 이상이 생긴다. 그러므로 太陽病은 주리의 개합을 담당하는 衛氣의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98].

체표의 開機能이 파괴된 太陽病은 인체의 外表인 皮膚와 肌肉의 紋理가 질퍽해져서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발생하는 暴病이 일어나는 것[99]이라고 할

98. 洪元植 精校, 上揭書, p.213. "衛氣者, 所以溫分肉, 充皮膚, 肥腠理, 司關闔者也."

99. 洪元植 精校, 上揭書, p.50."故開折則肉節潰而暴病起矣. 故暴病者, 取之太陽, 視有餘不足, 潰者, 皮肉宛焦而弱也."

수 있다. 暴病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皮膚, 肌肉으로부터 일어나는 傷寒이나 溫熱病 등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外感病으로 한정지을 수 있다.

『素問·熱論』에서는 熱病의 六經傳變을 논하면서 太陽病의 특징적인 증상에 대하여 '頭項痛, 腰脊强'[100] 등으로 개략하고 있다. 또 『傷寒論』에서 태양병을 傷寒과 中風으로 분류하여 특징적인 病症 등을 개괄하고 있다.

"太陽之爲病, 其脈浮, 頭項强痛而惡寒. 太陽病, 發熱汗出, 惡風, 脈緩者, 名爲中風, 太陽病, 或已發熱, 或未發熱, 必惡寒, 體痛嘔逆, 脈陰陽俱緊者, 名曰傷寒."[101]

그러므로 太陽病은 衛氣가 외부로부터 침범한 邪氣와 투쟁 중에 발생하는 病變으로, 그 發病이 급하며, 頭項痛이나 腰脊强 등 項背部에서 氣血의 不利로 일어나는 신체적인 증상과 더불어 發熱, 惡寒 惡風, 脈浮 등 衛氣가 體表에서 邪氣와 相衝할 때 일어나는 전신 증상을 야기하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다.

나. 太陰病의 病機와 病症

太陰病은 三陰經의 表로 陽明經에서 吸收, 轉化한 수곡의 精微之氣를 받아들여 전신으로 散布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體內의 開機能이 파괴된 태음병은 수곡의 정미지기를 받아들이고 輸布할 수 없기 때문에 膈膜의 의 안쪽이 텅비게 되어 인체의 正氣 부족상태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太陰病은 陽明經과 어울려서 수곡의 정미지기를 흡수하고 전화하는 과정의 이상으로 나타난다[102].

『素問·熱論』에서는 열병의 六經傳變을 논하면서 태음병을 시작으로 하는 三陰病을 三陽病에 비교하여 藏의 병에 속한다고 하고, 태음병의 특징적인 증상에 때하여 '腹滿, 嗌乾' 등이라고 하고 있다[103]. 또 『傷寒論』에서는 外感에 의해 발생하는 태음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太陰之爲病, 腹滿而吐, 食不下, 自利益甚, 時腹自痛, 若下之, 必胸下結鞕"[104]

그러므로 태음병은 太陰經이 수곡의 정미지기를 받아들여 輸布하는 기능이 쇠약해져 신체가 음식물을 더 이상 받아들이거나 담을 수 없는 상태의 병으로, 체내의 正氣가 허약해져 육부의 氣機를 실조시켜 수곡의 轉化作用까지 깨트린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太陽病이 正氣와 邪氣의 충돌로 신체에 氣가 過盛해진 상태의 實證이라고 한다면, 太陰病은 正氣가 부족한 虛證의 병이라고 할 수 있다.

② 闔의 病機와 病症

闔의 기능을 담당하는 經絡은 陽明經과 厥陰經이다. 陽明經은 身形의 內部에 위치하여 外界로부터 氣를 받아들여 자기의 氣로 전화시키는 작용을 하며, 厥陰經은 體腔 안에서 체내에 있는 氣血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가. 陽明經의 病機와 病症

陽明經은 三陽經의 闔으로 신형의 內側에 위치하고 外界로부터 음식물 등을 받아들여 인체에 필요한 氣血로 전화시키는 일을 주관하므로, 양명경이 병에 걸리면 음식물의 대사에 이상이 생긴다. 그러므로 陽明病은 음식물로부터 化生한 일차 생산물인 津液이나 穢濁物「大便 등」 등의 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闔機能이 파괴된 陽明病은 津液을 생산하지 못하므로 身形에서 津液을 저축하는 肌肉이 말라서 痿疾이 생겨나고 正氣가 약해져 邪氣의 침범을 허용하는 상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津液에 의해 자양되는 肌肉의 병적 상태는 陽明病의 전형적인 예[105]라고 할 수 있다.

『素問·熱論』에서는 陽明病이 太陽病 다음으로 나타난다고 하면서 그 주된 증상을 '身熱, 目疼, 鼻乾, 不得臥' 등이라고 하여 陽明病이 熱證의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106]. 즉 陽明經의 闔機能이 깨져 수곡의 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胃府에 쌓이면 鬱熱이 발생하여 邪熱이 치성해진다고 하고 있다. 『傷寒論』에서는 양

100.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素問, p.116. "今夫熱病者, 皆傷寒之類也, 或愈或死, 其死皆以六七日之間, … 傷寒一日, 巨陽受之, 故頭項痛, 腰脊强."

101. 成戊己 註解, 仲景全書, 서울, 大成文化社 影印, 1989, pp.118~119.

102.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靈樞, p.50. "故開折則倉廩無所輸, 膈洞, 膈洞者, 取之太陰, 視有餘不足, 故開折者, 氣不足而生病也"

103.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素問, p.116. "三陽經絡皆受其病, 而未入於藏者, 故可汗而已. 四日, 太陰受之, 太陰脈布胃中絡於嗌, 故腹滿而嗌乾."

104. 成戊己 註解, 上揭書, p.255.

105.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靈樞, p.50. "闔折則氣無所止息, 而痿疾起矣, 故痿疾者, 取之陽明, 視有餘不足, 無所止息者, 眞氣稽留, 邪氣居之也."

106.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素問, p.116. "二日, 陽明受之, 陽明主肉, 其脈俠鼻絡於目, 故身熱目疼而鼻乾, 不得臥也."

명병의 특성에 대하여 內證과 外證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陽明之爲病, 胃家實也. 問, 曰何緣得陽明病. 答, 曰太陽病, 發汗若下, 若利小便, 此亡津液, 胃中乾燥, 因轉屬陽明, 不更衣內實, 大便難者, 此名陽明病也. 問, 陽明病外證, 云何. 答, 曰身熱, 自汗出, 不惡寒, 反惡熱也."[107]

양명병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胃中에 津液이 亡失되고 邪熱이 치떠서 대변을 건조하게 하므로, 대변이 딱딱해져서 나가지 못하고 邪熱이 체표로 放散하므로 身熱이 있으면서 땀이 있고 熱을 싫어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양명병은 胃, 大小腸에서 음식물을 轉化하는 기능이 깨지고 邪熱이 치성하여 津液을 말림으로써, 안으로는 宿便이 쌓여 胃腸이 그득해지고 밖으로는 邪熱의 發散으로 열이 나면서 땀이 나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다.

나. 厥陰病의 病機와 病症

厥陰經은 三陰經의 闔으로 체내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체내에 있는 營血을 潛藏함으로써 신체와 神志가 계속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바탕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厥陰病은 형체를 이루고 神志를 안정시키는 토대가 되는 氣血의 안정상태 혼란으로 나타난다[108].

『素問·熱論』에서는 厥陰病은 六經 중 가장 나중에 걸리는 병으로 특징적인 증상을 "煩滿而囊縮"이라고 하고 있으니[109], 囊縮은 신체의 下內部에 營血이 耗損되어 睾丸이 失潤하여 凝縮된 것이며 煩滿은 上外部로 虛熱이 치떠서 밖으로 心을 어지럽히고 있는 상태이다. 『傷寒論』에서는 厥陰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厥陰之爲病, 消渴, 氣上撞心, 心中疼熱, 饑而不欲食, 食則吐蚘, 下之利不止."[110]

消渴은 虛熱로 인해 氣血이 갈진된 상태를 나타내며, 氣가 위로 치받아 心中이 무지근하게 아프면서 열이 나는 것은 심장이 허약해져 지탱하기 힘든 상태이다. 굶주려도 먹을 수 없으며 먹으면 회충이 올라오는 것은 체내에 더 이상 받아들일 기력이나 쓸 자양분이 없기 때문이며, 下法을 쓰면 下利가 그치지 않는 것은 下焦에 陰寒之氣가 성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厥陰病은 三陽, 二陰(少陰과 太陰) 등 체내 모든 부위의 氣血이 손상을 받고 陽氣와 精血이 깨져, 위로는 虛熱이 치뜨고 아래로는 陰寒之氣가 치성한 상태, 즉 陰陽 二氣가 離決된 危證이라고 할 수 있다.

③ 樞의 病機와 病症

樞機能을 담당하는 경락은 少陽經과 少陰經이다. 소양경은 신체에서 태양경과 양명경이 겹치는 부위인 咽喉나, 耳目, 脇部 등에 분포되어 있으며, 소음경은 복부의 下內側과 요도 등 신체의 下深部를 차지하고 있다.

가. 少陽經의 病機와 病症

少陽經은 신체의 外形을 담당하는 태양경과 양명경의 樞로서 部位的으로 兩 經의 경계부위에 위치하여 태양경과 發散과 양명경의 收縮을 조절함으로써 氣의 外發과 內收, 身形의 伸展과 屈伸을 조절하여 신형이 움직일 때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해준다.

『素問·熱論』에서는 三陽病의 마지막 단계로 少陽病을 들면서 특징적인 증상으로 '胸脇痛, 耳鳴' 등을 들고 있다[111]. 『傷寒論』에서는 소양병의 주된 증상이 '口苦, 咽乾, 目眩'[112]이라 하였으니, 소양병은 氣의 큰 出入路라고 할 수 있는 입, 귀, 눈, 목구멍 등과 身形의 前後, 內外 경계인 胸脇의 이상을 초래한다고 하고 있다. 또 소양병의 특징적인 증상으로 '寒熱往來'가 있으니, 이는 少陽經이 氣의 출입조절에 실패하여 陰氣와 陽氣가 서로 교류하여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勝復을 반복할 때 나타나는 病變이다. 또 소양경은 신체가 운동할 때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니, 『靈樞·根結』에서는 신형의 안정상태가 깨진 것은 樞의 병[113]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少陽病은 氣의 出入이나 身形의 균형을 조

107. 成戊己 註解, 上揭書, p.220.
108.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靈樞, p.50. "闔折卽氣絶而喜悲. 悲者, 取之厥陰, 視有餘不足."
109.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素問, p.116. "六日, 厥陰受之, 厥陰脈循陰器而絡於肝, 故煩滿而囊縮."
110. 成戊己 註解, 上揭書, p.168.
111. 洪元植 精校, 上揭書, p.116. "三日, 少陽受之, 少陽主膽, 其脈循脇絡於耳, 故胸脇痛而耳聾."
112. 成戊己 註解, 上揭書, p.250. "少陽之爲病, 口苦, 咽乾, 目眩也."
113.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靈樞, p.50. "樞折卽骨繇而不安於地, 故骨繇者, 取之少陽, 視有餘不足. 骨繇者, 節緩而不收也."

절하는 氣機가 失調된 병이라고 할 수 있다.

나. 少陰病의 病機와 病症

少陰經은 三陰經의 樞로서 六經 중 身形의 最中心部에 위치하여 陰陽 二氣의 轉化 즉 陰精의 生成과 陽氣의 發動을 조절하여, 인체 陰陽 二氣의 조화를 맞추는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소음경의 이상은 陰陽 二氣의 조화상실과 弱化로 나타난다. 따라서 소음경에 병변은 대부분 邪氣의 有餘보다는 正氣의 虛衰로 나타난다[114]. 이는 『素問·熱論』에서 熱病의 傳變 중에 나타나는 소음병의 病症인 '口燥, 舌乾而渴'[115] 등의 陰氣가 竭盡되어 虛熱이 뜨는 상태나 『傷寒論』의 少陰病 강령에 나타나 있는 '脈微細, 但欲寐'[116] 등의 陽氣가 쇠약해져 끊어지려고 상태 등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소음병의 특징은 상기의 병증 이외에도, 陽氣가 쇠약하면 '四肢厥逆, 下利淸穀' 등이 亡陽證이 나타날 수 있으며, 陰氣가 쇠약하면 '咽痛, 胸滿煩心'[117] 등 虛熱이 치뜨는 病變이 일어날 수도 있다.

(2) 身形의 縱的 病機와 病症

經絡의 縱的인 순행은 身形을 縱的으로 六等分(手足十二等分)하여 분할함으로써, 장부와 신형 각 부분간의 有機的인 一體性을 확보하도록 해준다. 따라서 경락의 종적인 순행노선에 따라 분할되는 각 부위에 포함되어 있는 皮膚, 血脈, 肌肉, 筋骨 등은 그 부분을 관통하고 있는 경락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경락을 주재하는 體腔 내의 장부와도 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경락의 순행노선을 중심으로 분할되는 따라 경락의 지배부위 皮膚를 十二皮部라하고, 십이피부 안쪽에에서 骨節과 束絡하여 신형의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근육을 十二經筋이라고 하는데, 신형의 종적인 病機는 대부분 이들의 病變으로 드러난다[118]. 그러므로 신형의 부분 부분에서 국소적으로 발생하는 病變은 모두 그 부위를 순행하는 경락의 상태와 직결되어 있으며, 주재하는 장부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락 病變의 형태는 病因의 寒熱에 따라 특성이 좌우된다. 寒邪가 일으키면 근육이 긴장과 응축, 뒤틀리면서 뼈에 통증이 발생하고 熱邪가 일으키면 근육이 이완되어 무력해지며 뼈가 삭고 肌肉이 마르면서 腸肉(장딴지 등 뭉친 살)이 파괴된다고 하였다[119][120].

예로 足太陽經의 病機 및 病症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足太陽經의 身形에서 分布路線은 눈의 內眥(睛明)에서 시작하여 頭項(玉枕, 天柱)을 거쳐 척추를 끼고(藏府 背部兪穴이 분포한 1선과 그 옆의 2선) 下行하여 腰部를 지나고 다리의 後面을 따라 계속 下行하여 足外踝(崑崙, 僕參)를 돌아서 小指(至陰)의 끝에 이른다. 즉 足太陽經은 인체의 頭項部와 척추를 낀 肩背部와 腰部, 足의 後面部의 발의 外側面 등을 지배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足太陽經의 순행노선 상에 분포한 皮膚, 肌肉, 血脈이나 筋骨 등은 모두 足太陽經의 지배를 받는다[121][122].

그러므로 이 영역을 따라 발생하는 筋骨 등 모든 五體의 이상은 足太陽經을 따라 유주하는 氣血의 유주상태에 이상이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經脈 자체의 이상으로 생기는 病症들은 '寒熱, 頭痛, 項强, 腰脊疼痛, 鼻塞, 目痛多淚; 大腿膝窩小腿 및 足部의 疼痛 등'을 들 수 있으며[123], 身形의 운동과 관련된 대표

114.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靈樞, p.104. "樞折則脈有所結而不通, 不通者, 取之少陰, 視有餘不足, 有結者, 皆取之不足."

115.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素問, p.117. "五日, 少陰受之, 少陰脈貫腎絡於肺, 繫舌本, 故口燥舌乾而渴."

116. 成戊己 註解, 上揭書, p.258. "少陰之爲病, 脈微細, 但欲寐也"

117. 成戊己 註解, 上揭書. p.267. "少陰病, 下利咽痛, 胸滿煩心者, 豬膚湯主之."

118. 洪元植 精校, 上揭書, p.198. "黃帝問曰, 余聞皮有分部, 脈有經紀, 筋有結絡, 骨有度量, 其所生病各異, 別其分部, 左右上下, 陰陽所在, 病之始終, 願聞其道. 岐伯對曰, 欲知皮部以經絡爲紀者, 諸經皆然."

119.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靈樞, p.104. "經筋之病, 寒則反折筋急, 熱則筋弛縱不收, 陰痿不用, 陽急則反折, 陰急則俛不伸. …熱則筋縱不收, …"

120.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素問, p.104. "其留於筋骨之間, 寒多則筋攣骨痛, 熱多則筋弛骨消, 肉爍腘破, 毛直而敗."

121. 洪元植 精校, 上揭書, p.198. "太陽之陽, 名曰關樞. 上下同法, 視其部中有浮絡者, 皆太陽之絡也."

12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p.50. "足太陽之筋, 起於足小指, 上結於踝, 邪上結於膝, 其下循足外踝, 結於踵, 上循跟, 結於腘. 其別者, 結於踹外, 上腘中內廉, 與腘中并上結於臀, 上挾脊上項. 其支者, 別入結於舌本. 其直者, 結於枕骨上頭, 下顔, 結於鼻. 其支者, 爲目上綱, 下結於頄. 其支者, 從腋後外廉, 結於肩髃. 其支者, 入腋下, 上出缺盆, 上結於完骨. 其支者, 出缺盆, 邪上出於頄."

적인 病症을 살펴보면 '小趾支(소지의 운동장애), 筋腫痛, 腿擧急, 脊反折, 項筋緊急, 肩不擧, 腋支, 缺盆中紐痛, 목의 轉搖不能 등[124]을 들 수 있다.

身形의 病機는 신형의 각 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경락의 상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신형의 立體的인 병기는 경락의 순행노선 보다는 六經의 독자적인 開闔樞 기능에 따라 立體的으로 분할된 신형의 각 부분이 邪氣의 침범을 받아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며, 나타나는 病變은 全身性을 띠고 있다. 이는 주로 風寒, 溫熱 등 外感 邪氣로 인해 正氣가 핍박을 받아 인체와 天地의 氣交작용이 어긋나서 발생한다. 이에 비하여 경락의 分布路線을 따라 일어나는 신형의 縱的인 病機는 각 경락의 분포노선 상에 있는 筋骨, 皮肉 등 五體를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하여 발생하며, 나타나는 병변은 局所性을 띠고 있다. 이는 주로 過勞나 부적절한 생활(운동이나 일 등) 등으로 인체 局所部位의 筋骨, 皮肉 등의 일부가 쇠약해져 寒熱의 부조화가 생긴 상태에서 그 부위를 담당하고 있는 經絡이 이를 滋養, 保存하지 못해 발생한다.

나아가 身形과 藏府는 경락을 통해 서로 相通하고 있기 때문에 病變이 깊어지면 서로 영향을 미친다. 즉, 상통하는 經絡을 통해 身形의 病變은 장부로 영향을 미치고, 장부의 病變은 신형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生機와 마찬가지로 病機에서도 內外 陰陽表裏의 因果關係를 맺고 있다[125].

Ⅳ. 결론

지금까지 藏府와 身形의 空間的인 配列關係와 이를 構通하고 있는 경락의 역할을 통해, 장부와 신형의 病機 및 病症 특성에 대하여 고찰해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오장의 기본 病症은 각 藏의 기능에 따라 神志와 身形 兩 方面으로 나뉘니, 오장 중 陽化를 주도하는 藏(陰中之陽인 肝과 陽中之陽인 心)은 주로 陽化의 이상 곧 神志의 질병으로 드러나며, 陰化를 주도하는 藏(陰中之陰인 腎, 陽中之陰인 肺, 陰中之至陰인 脾)은 주로 陰化의 이상 곧 形體의 질병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오장 자체의 병증은 五藏之氣의 虛實에 따른 精, 神, 氣, 血의 성쇠나 기능의 상실,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五行之氣의 기세가 천지자연의 변화에 따라 거슬려 각 장부가 氣機가 조화를 잃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오장의 五行之氣 盛衰는 天地의 時間的인 변화(계절)에 따라 氣勢가 바뀌므로, 時期나 五藏之氣의 盛衰에 영향을 받아 변하는 氣勢의 상태에 따라 각 藏의 空間的인 배열구도에 따라 관련된 身形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각 藏府之氣와 相通하는 五體와 九竅의 성쇠를 좌우함으로써 각기 독특한 病變을 일으키고 있다. 반면에 六府는 體腔의 중심을 管처럼 관통하면서 水穀의 轉化와 吸收, 排泄에 관련된 대사에 그 역할이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病機도 이들 전화과정의 파탄과 육부의 기능실조가 공간 배열상 근접한 주변부위의 氣機不利를 야기시키는 機轉으로 발현하니, 腹痛이나 腹滿, 大小便不利, 음식물의 섭취와 소화장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지 오장 중 脾는 胃를 대신하여 水穀之氣를 散布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육부의 상태와 직결된 병변이 많이 나타나고, 육부 중 膽은 神志의 發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장이 주재하는 神志와 관련된 病變이 많이 나타난다.

身形의 病機는 신형의 각 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경락의 상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신형의 立體的인 병기는 경락의 순행노선 보다는 六經의 독자적인 開闔樞 기능에 따라 立體的으로 분할된 신형의 각 부분이 邪氣의 침범을 받아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며, 나타나는 病變은 全身性을 띠고 있다. 이는 주로 風寒, 溫熱 등 外感 邪氣로 인해 正氣가 핍박을 받아 인체와 天地의 氣交작용이 어긋나서 발생

123. 全國韓醫科大學 鍼灸·經穴學 敎室 共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3, p.92.

124. 洪元植 精校, 上揭書, p.102. "其病小趾支, 跟腫痛, 腿擧, 脊反折, 項筋急, 肩不擧, 腋支, 缺盆中紐痛, 不可左右搖,"

125.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素問, p.198. "是故百病之始生也, 必先於皮毛, 邪中之則腠理開, 開則入客於絡脈, 留而不去, 傳入於經, 留而不去, 傳入於府, 廩於腸胃. 邪之始入於皮也, 泝然起毫毛, 開腠理. 其入於絡也, 則絡脈盛色變. 其入客於經也, 則感虛乃陷下. …皮者, 脈之部也. 邪客於皮, 則腠理開, 開則邪入客於絡脈, 絡脈滿, 則注於經脈, 經脈滿, 則入舍於府藏也. 故皮者, 有分部, 不與而生大病也."

한다. 이에 비하여 경락의 分布路線을 따라 일어나는 신형의 縱的인 病機는 각 경락의 분포노선 상에 있는 筋骨, 皮肉 등 五體를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하여 발생하며, 나타나는 병변은 局所性을 띠고 있다. 이는 주로 過勞나 부적절한 생활「운동이나 일 등」 등으로 인체 局所部位의 筋骨, 皮肉 등의 일부가 쇠약해져 寒熱의 부조화가 생긴 상태에서 그 부위를 담당하고 있는 經絡이 이를 滋養, 保存하지 못해 발생한다.

나아가 身形과 藏府는 경락을 통해 서로 相通하고 있기 때문에, 身形의 病變은 藏府로 영향을 미치고, 藏府의 病變은 身形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生機와 마찬가지로 病機에서도 內外 陰陽表裏의 因果關係를 맺고 있다.

V. 참고문헌

1. 柯琴, 傷寒來蘇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 凌耀星, 難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3. 朴贊國,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上. 서울, 慶熙大學校 出版局, 1998.
4. 成戊己 註解, 仲景全書, 서울, 大成文化社 影印, 1989.
5. 嚴用和, 濟生方-中國醫學大系11, P.451. 商務印書館 影印.
6. 李東垣, 內外傷辨-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成文化社 影印, 1983.
7. 李梴, 醫學入門, 서울, 大成文化社 影印, 1989.
8. 張介賓, 景岳全書·상, 서울, 大成文化社 影印, 1988.
9. 全國韓醫科大學 鍼灸·經穴學 敎室 共編,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3.
10. 陳無擇, 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11.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12.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13.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四聖心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